

송소고택 별채에 앉아
 조선 영조 때 재산이 만석에 이르던
 심저대의 7대손 심호택이 1880년경
 조상의 본거지인 덕천리로 이거하면서
 건축한 가옥이다. 아흔아홉 칸으로
 당시 민가로서는 최대 규모다.
 대문을 열면 은행과 단풍나무가
 자리한 마당이 위치하고 안방과
 사랑채가 공존한다. 경상북도 북부의
 민가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국가의 중요민속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청송별곡

어린이의 볼처럼 사과가 발갛게 익어가는 곳, 청춘의 자화상처럼 강렬하게 솟구친 암벽을 품은 곳.
 청송을 거닐며 즐거움을 맛보다. 글과 스타일링 현재리 기자 사진 김정환 메이크업 이지원 헤어 윤성호 모델 현지은 어시스턴트 김혜민

스트라이프 무늬가 가미된 가죽 소재의 코트는 펜디,
 어두운 보라색 바지는 3.1 필립 제품.





울 소재의 지긋빛 코트는 에트로, 실크 소재의 검은색 블라우스는 아노나, 스팽글이 한 줄로 장식된 검은색 바지는 브루노 쿠차렐리, 가죽 소재의 검은색 부티는 아쉬 제품. 장소는 송소고택



스웨이드 소재의 판초와 분홍색 터틀넥 니트, 코튼 소재의 바지는 모두 랍프 로렌 제품.



청송 백자를 벗 삼아

'도석'이라는 돌을 빻아 빚는 청송 백자는 흙으로 만드는 도자기보다 회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50년간 맥이 끊겼다가 5년 전부터 고만경 장인이 복원하고 있다.

청송군은 이러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청송 백자 전수장을 마련해 청송 백자를 직접 보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렌지색 꼬리가 돋보이는 퍼 소재의 작은 토트백 겸 크로스백은 펜디 제품.



매력적인 녹색 더블브레asted 코트와 레이스가 장식된 회색 니트 상의,
울 소재의 회색 치마, 펠트 소재의 회색 모자는 모두 에르메스 설비노,
니트 소재의 회색 머플러는 콩뜨와 데 꼬뜨네에 제품.

사과밭에 서서

오래전 청송은 끝없는 산길을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겼다.

그래서인지 자연의 청정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특히 일조량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적어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한 사과가 재배된다. 매해 가을이면

사과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11월 7일부터 4일간 열린다.

검은색과 회색이 조화를 이룬 터틀넥 니트와 간결한 디자인의 검은색 팬츠.

질재미가 느껴지는 밝은 회색 코트는 모두 질 샌더.

풍성한 퍼가 장식된 숏치 소재 구두는 펜디 제품.



백석탄에 올라

7천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흘러내린 용암이 굳어지면서 생긴 계곡이다. 하늘에 닿을 듯 솟아 있는

하얀 바위 사이로 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임진왜란 때 고두곡이란 장수가 왜군에게 부하를 모두 잃고 해마다 이곳에서 슬픔을 달랬다고

전해질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기하학 패턴의 가죽 소재 판초와 실크 소재의 하늘색 롱 블라우스는

모두 토즈, 짙은 회색의 통 넓은 팬츠는 캘빈 클라인 플래티늄.

스웨이드 소재의 검은색 구두는 에르메스 제품.

제품 협조 콩뜨와 데 꼬뜨니에(010-546-7764), 랄프 로렌(02-545-8200),

브루노 쿠치넬리(02-3438-6207), 아노나(02-2240-6524),

아쉬(02-6905-3878), 에르마노 셀비노(02-6905-3650),

에트로(02-3018-2312), 질 샌더(02-547-4485),

캘빈 클라인 플래티늄(02-543-8950), 토즈(02-3467-8411),

펜디(02-514-0652), 3.1 필립립(02-310-5373).



산이 깊어 맛도 깊다 청송



기괴한 암석을 나뭇잎 보자기로 고이 감싼 듯한 형상의 웅장한 주왕산. 산속 연못인 주산지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암자에는 노승이 혼자 살고, 산 아래 마을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땅에서 솟아나는지 모르는 신비한 약수를 떠 밥을 지어 먹는 소박한 주민들이 살아간다. 계곡마다 맑은 폭포가 흘러내리고, 도공이 계곡의 돌을 캐고 물속의 돌을 주워 새하얀 백자를 빚는 고장. 산자락에서 달콤한 사과가 익고 논에서 금빛 벼가 춤출 때 옛 초등학교 교실에서 향기로운 사과주를 담그는 마을. 느리고 천천히 하지만 풍요롭고 알차게 익어가는 청송의 가을 풍경 속으로! 글 김민정 수석기자, 신진주 기자, 이정선 사진 김동오·이경욱 기자, 이명수 취재 협조 청송군청

청송의 슬로 푸드 청송 사과

청송 백자 사이에 마치 가을 산의 풍광처럼 빨갛고 노랑계익은 청송 사과를 놓았다. 산간 지역인 청송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풍족한 고장. 1924년 한 종교인이 묘목을 들여오면서 청송에서 사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해발 250m에 일교차가 크고 해양성 기후와 내륙성 기후가 교차하는 청송의 자연은 사과 재배를 위한 천혜의 자연조건. 청송 사과는 전국 어느 사과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고 산미가 적당하다. 객토와 퇴비를 사용하는 건강한 토양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개인 농장에서도 저농약 재배를 시도해 껍질째 먹는 사과 역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송에서 재배했다.

2014 청송 사과 축제

해마다 사과 수확이 끝난 가을에 여는 사과 축제는 주왕산 단풍놀이와 이색적인 사과 요리 시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청송 지역 농민의 주요 소득원인 사과의 한 해 수확을 마무리한 후 온 고장이 즐거운 퍼레이드와 음악회, 요리 경연 대회, 예술 공연 등을 벌이며 한바탕 즐거움에 빠진다. 올해 축제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청송군 사과공원에서, 11일과 12일 이들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청송 사과공원 주소** 경북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로 222 문의 054-970-6227(청송군관광과), 054-873-3686(축제추진위원회)



흙이 아닌 돌로 만든 백자의 가치
청송 백자 마지막 사기 대장 고만경 옹

5백 년 전부터 청송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서민들이 밥을 담고 나물을 올려 먹던 청송 백자. 청송의 도공은 산자락에서 도석(일반 도자기는 도토라는 흙으로 빚어 만들지만, 청송에서는 돌가루로 만든다)을 캐고 빻는 고된 과정을 거쳐 하얀 사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도석 가루를 아끼고 등금쟁이(보부상)가 많이 짊어지게 하기 위해 자연스레 얇고 가벼운 사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다.

“도석이라는 특별한 자연 소재로 만드는 청송 백자는 1970년대 이후 양은그릇, 플라스틱 그릇이 대거 등장하면서 50년간 백이 끊겼습니다. 도공이 자연 재료로 인공의 시간을 담아 만든 그릇이지만, 공장에서 기계로 똑딱 찍어내는 그릇과 경쟁할 수가 없으니 말이지요.”

청송 부남에서 태어나 청년기에 15년간 민요에서 백자 만드는 일을 배우며 사기 대장까지 지낸 고만경 옹은 공방을 떠난 지 50여 년 만인 2009년에야 옛 도석 광산 자리에 청송군이 마련해준 백자 전수장으로 돌아와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전수관 앞산에서 돌을 캐고 빻은 뒤 배합해서 모양을 만들고 유약은 노천 아래서 캔 돌가루로 만드니 청송 백자는 오롯이 자연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가볍고 떨어뜨려도 쉽게 깨지지 않도록 그릇의 끝을 밖으로 미세하게 말아 빚거나 양과형의 독특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청송 백자의 기술력이지요.”

청송의 향토 문화이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청송 백자를 보전하고 맥을 잇기 위해 청송군은 청송문화관광재단을 발족했다. 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국내의 도예가들이 청송 백자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입주 작가를 공개 모집해 지원한다. 산은 깊지만 그보다 더 깊은 도공의 혼이 깃들어 있기에 세상과 더 넓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유산, 이것이 청송 백자의 소중한 의미요 진귀한 가치다.

청송 백자 전수장
 주소 경북 청송군 부동면 법수길 190
 문의 054-873-7744, www.csbaekja.kr



청송의 술로 푸드 청송 사과 아락

‘아락(Arak)’은 증류주를 뜻하는 세계 공통어. 청송 사과 아락은 청송의 사과와 청송에서 재배한 쌀로 천천히 정성껏 만든 사과 증류주를 뜻한다. 자연에서 얻은 싱싱한 사과와 쌀을 그대로 증류해 원료 특유의 풍미와 향을 잘 살린 것이 청송 사과 아락의 특징. 청송군청은 우리나라 전통주 명가인 배상면주가와 협력해 지역의 이름을 당당히 내건 청송 사과 아락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이 술은 폐교가 된 주왕산초등학교 건물을 개조해 만든 청송양원이라는 양조장에서 생산하며, 배상면주가의 전국 판매망과 자체 판매망으로 유통해 청송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느린마을 양조장 청송양원
 주소 경북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 162-1
 문의 054-874-1645

청송 백자 잔에 사과주 아락을 담아 단아한 술상을 차렸다.



주왕산 달기폭포

멀리서부터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우렁차다. 11m 높이의 폭포는 주왕산의 또 하나 대표 폭포인 용추 폭포와 비교하면 훨씬 남성적인 기운을 뽐낸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바로 밑의 웅덩이, 용소龍潭의 깊이는 명주실 한 타래를 다 풀어도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깊다고 한다.



중평 솔밭

“소나무와 잣나무는 울음처럼하고, 연기와 노을은 어두침침하게 잠겨 있어 맑고 그윽한 한 동학이 의젓한 선경仙境인 듯하다.”
 조선시대의 문인 흥여방이 기록한 것처럼 청송靑松은 ‘푸른 소나무’의 고장이다.
 사양서원으로가는 길목에 만난 중평 솔밭에는 2백년 이상 된 소나무 80여 그루가 기세등등하게 숲을 이룬다.

일본에서 청송의 선조를 찾아온 도예가 일본 사쓰마야키 명인 심수관

일본 가고시마 현(옛 사쓰마번)에는 청송 심씨靑松沈氏의 성을 4백여년 동안 지켜온 도자기 가문이 있다. 일본 3대 도자기로 불리는 ‘사쓰마야키의 심수관沈壽官 일가다. 4백년 전 정유재란 당시 조선의 많은 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이 가문의 초대 당주인 심당길 도공도 그중 하나였다. 그의 솜씨는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고 가문 대대로 예술혼이 이어져 심수관 일가는 일본 최고의 도예가로 우뚝 섰다. 그의 후손이 남긴 사쓰마야키가 지난 4월 청송 주왕산 자락에 문을 연 심수관도예전시관에 전시되었다. 무려 4백16년 만에 성사된 귀향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 당주인 15대 심수관 도예가가 그의 부인 오사코 스미코大迫壽美子와 함께 청송 심씨의 시조묘를 찾아와 조상에게 예를 갖췄다. 30년 전 청송으로 신혼여행을 온 부부의 두 번째 방문인 것. “좋은 도자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심수관 도예가는 ‘지역성’을 첫머리에 올린다. “조선백자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문의 선조들이 목표한 빛깔, 형태, 질감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보는 순간 ‘이것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원료와 방법, 생산지가 한 맥락을 이루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대 심당길 도공이 처음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 때 조선에서 쓰던 원료를 구하지 못해 사쓰마번의 흙을 쓰면서 그 원료에 적합한 방법을 구현해냈습니다. 그것이 발전한 지금의 사쓰마야키는 매우 독창적 도자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에 화려한 금색 유약을 칠하고 정교한 기법을 더한 사쓰마야키와 담담하고 유려한 조선백자 사이에는 4백여년 시간과 거리만큼의 간극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심수관 일가는 늘 고향을 찾는다. 서민을 위한 새하얀 백자를 만들던 고향 청송이 일본 최고 도예 가문의 고향이자 예술적 기원이다.



청송 백자 전시관 & 청송 심수관도예전시관

5백여 년의 역사를 지닌 조선시대 대표 서민 생활 도자기 청송 백자와 청송 심씨의 후손인 일본 가고시마 현 심수관가家の 도자기를 번갈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청송에 문을 열었다. 도석이라는 돌의 기루로 만든 청송 백자는 흰 눈처럼 맑고 투명한 빛을 띠며 그릇 두께가 얇고 놀랄 만큼 가볍다. 반면, 사쓰마야키는 정밀한 투각 기법과 다양한 색의 유약을 입혀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두 전시장에서 각각 대접, 주병 등 청송 백자 40여 점과 12대부터 15대 심수관까지 사쓰마야키의 대표작 30여 점을 전시해 조선과 일본의 도예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주소 경북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494
 문의 054-874-0101, www.cctf.or.kr



**흙냄새도 나고 사람 냄새도 나아 좋은 옹기
청송 전통 옹기장 이무남**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이무남 옹기장의 작업장 외에 그의 옹기를 파는 별도의 매장은 없다. 그런데도 옹기의 전성기이던 1970년대 이전이나 요즘이나 길쭉한 잔뜩 부린 옹기를 '청송 옹기'라고 속여 파는 해프닝이 간혹 들려온다. 청송 옹기를 한번 써보면 누구나 최고로 꼽아 그 오랜 세월 독보적 명성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청송 옹기는 오색 점토로 만듭니다. 흙에서 다섯 가지 흙이 한꺼번에 나오는 곳은 청송밖에 없지요. 황토가 많이 섞인 이 좋은 흙으로 물 반죽을 하고 발로 밟아 모양을 만든 것을 청송의 선선한 산바람에 잘 말립니다. 옹기가 알맞게 굳으면 청송의 소나무와 참나무를 태운 재와 부엽토를 섞은 잿물을 유약 대신 발라 1200℃로 굽는 가마에서 굽지요. 고열로 구울 때 잿물의 알갱이가 표면에 작은 숨구멍을 만들어 공기가 잘 드나들게 되니 음식을 담아도 썩지 않는 숨 쉬는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18세에 뒷산의 흙으로 옹기 만드는 것을 배워 56년째 옹기를 빚고 있는 그는 지금도 빛이 들지 않는 움막 같은 작업장에서 옹크린 채 물레를 돌린다. 화학 유약을 발라 매끈하게 뽑은 요즘 옹기에 비하면 재와 흙을 발라 구운 그의 옹기가 투박하고 덩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유명 명장 공장이든 김치를 담아본 주부든 그의 옹기를 써 본 사람이면 누구나 굵이 굵이 청송으로 옹기를 사러 다시 찾아오고, 자연 친화적이고 사람 냄새 나는 제품이 귀해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아져 그의 옹기 작업은 멈춤이 없다. 든든한 아들이 가마에 불 때고 흙 나르는 일을 함께 하며 전수자의 길을 가기에 그리 외롭지만은 않다는 이무남 옹기장. 청송 옹기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이 살아서 맥이 이어지는 게 더없이 뿌듯하다며 웃는 그의 미소가 또 한 겹의 구수하고 훈훈한 유약으로 청송 옹기에 덧입혀져 있다.

청송 전통 옹기장(체험관)
주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4리 351
문의 054-874-3362

청송의 슬로 푸드 약수담백숙

조선 철종 때 금부도사를 지낸 권성하가 청송으로 낙향해 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약수를 발견했다. 그 물을 마셨더니 트림이 나오고 속이 편했는데, 신기하게도 냄새와 빛이 없는 약수는 아무리 가물어도 솟아나는 양에 변함이 없었고 엄동설한에도 얼지 않았다. 또 이 약수로 밥을 지으면 푸른빛이 들고 찰기가 있어 맛도 좋고 소화도 잘되었다. 특히 청송 주민들은 담백숙을 끓일 때는 반드시 약수를 이용한다. 철분 함량이 많은 이 약수로 담백숙을 끓이면 닭의 지방이 제거되어 맛이 더욱 담백하고 위에 부담이 적다.

신촌약수탕 명궁약수기든
주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31-12 문의 054-874-0033

명궁약수기든은 가게 정문 앞에서 솟아난 약수를 바로 받아 백숙을 끓인 뒤 구수한 누룽지를 얹어 낸다. 닭기름살로는 맛깔스러운 떡갈비를 만든 뒤 숨 쉬는 청송 옹기에 담아 식당 앞 너른 바위 위에 상을 차렸다.



**참닥나무로 만든 선비의 종이
청송 전통 한지장 이자성**

"청송의 참닥은 다릅니다. 이거 봐요, 나무줄기가 요렇게 대나무처럼 키가 크고 쪽쪽 뻗어서 탈피하기가 좋지요." 사슴 발목처럼 가늘지만, 바람에 묵직하게 흔들리는 것은 한지 원료인 참닥나무다. 한지 생산장 주변에는 이 참닥나무가 지천이다. 이 지역의 흙에서 나고 자란 참닥나무 예찬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이는 7대째 한지를 만드는 이자성 명인. 그는 청송이 한지 생산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이유로 우수한 원료, 깨끗한 물, 기술을 꼽았다. "만져봐요, 매끈매끈하게 윤기가 흐르고 맑지요. 그치요? 아니면 그 종이는 죽은 겁니다. 물이 나쁘면 그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물에 철분이 들어가면 한지가 변색돼요. 1천 년 이상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자꾸 붉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3년 미만의 토종 참닥 또한 섬유가 곱고 부드러운 고품질의 한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원료. 이자성 명인은 생산장 부지에 참닥나무와 함께 재배하는 황족류 뿌리의 점액(닥풀)을 배합해 한지를 만든다. 청송의 흙에서 나고 자란 원료가 결국 골격있는 청송 한지를 완성하는 것. 그렇게 참닥을 채취해 삶아 껍질을 벗기고, 다시 껍질을 말려 삶고 씻고, 섬유를 두드리고 풀어 발로 뜨고, 물을 빼고 건조하고 다듬는 과정을 반복한다. 고된 노동의 시간을 견디면서 전통 한지 생산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자성 명인의 남다른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서는 수입 닻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송 한지는 다릅니다. 순수 전통 한지를 지키는 것이 우리 종이를 지키는 일이고, 나아가 우리 문화와 정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지를 만드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자 사명이라 강조하는 이자성 명장. 그가 만드는 청송 한지는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명인의 땀과 고뇌와 바람이 압축된 신성한 보물이다.

청송 전통 한지장(체험관)
주소 경북 청송군 파천면 청송로 5882-41
문의 054-872-2789

청송의 슬로 푸드 산채비빔밥

청송 산지에서 채취한 각종 산나물을 넣은 산채비빔밥은 청송의 지역색을 반영한 대표 먹거리. 박하송 대표가 운영하는 주왕산 청송 식당의 비빔밥에는 일반적으로 취나물, 달래순, 표고버섯, 어수리나물, 고사리, 무생채가 들어간다. 밥 위에 나물과 달걀 프라이를 올려 재래 고추장 양념장에 비벼 먹는다. 여기에 된장찌개를 함께 낸다. 당귀김치, 곰취김치, 참취, 병풍나물, 박취나물, 박잎장아찌, 뽕잎장아찌, 당귀무침 등 각종 자연산 산나물과 나물전, 더덕구이, 도토리묵을 곁들여 한 상에 나오는 산채 정식도 별미다. 특히 '언어리'라 불리는 어수리나물의 짝새래한 향이 입맛을 진하게 돋운다. 건강한 식재료가 집약된 주왕산의 산채 비빔밥은 그야말로 자연 보양식이다.

주왕산 청송 식당
주소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19 문의 054-873-8808

청송 전통 한지를 테이블 매트 삼아 청송의 자연산 산채비빔밥을 차렸다.





보일 듯 말 듯 느리게 걷는 외씨버선길

청송은 산이 많은 마을이다. 해발 900m 내외의 산으로 둘러싸여 예부터 사람들은 골짜기 주변에 웅기종기 모여 살았다. 산과 물, 마을과 마을 사이를 느릿느릿 걷다 보면 자연과 더불어 평온하게 살아온 산사람들의 기운이 느껴진다. 외씨버선길은 청송, 봉화, 영양, 영월 네 개 군을 아우르는 총 170km의 길. 열세 개 구간 가운데 청송을 통과하는 45.6km를 소개한다. 환상적인 단풍으로 소문난 청송의 가을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주왕산과 대전사 풍경

첫째 길, 주왕산·달기약수탕길

조선 후기의 문인 홍여방은 <찬경루기讚慶樓記>에 “청송의 산세는 기복이 있어 용이 날아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범이 웅크린 것도 같으며, 물은 서리고 돌아마치 가려 하다가 다시 오는 것 같다”고 기록했다. 주왕산을 보면 딱 그렇다. 약 7천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암석이 꿈틀거리듯 독특한 지형으로 자리 잡았다. 웅장하면서도 기품이 넘치고, 원시적이면서 기세등등하다. 외씨버선길의 첫째 길은 바로 이 **주왕산**. 청송의 소문난 달기약수탕까지 이르는 길은 산과 물을 만나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하다. “산등성이 땅의 근육이고, 흐르는 강물은 땅의 혈액이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말처럼 산은 땅의 생명력의 표상이다. 머리 위로는 바위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눈앞에 폭포가 떨어지고, 발밑에는 새가 지저귀는 생생한 기운을 뽐뿌 받으며 느릿느릿 걸어보시길. 특히 주왕산국립공원 안내 센터에서 각각 약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웅추폭포**와 **용연폭포**는 천연 워터파크가 따로 없다. 물길 따라 형성된 기암의 울퉁불퉁한 굴곡을 따라 청명한 소리를 자랑하며 쏟아지는 폭포는 주왕산의 특별한 볼거리. 옛날 용이 살았다는 전설의 용연폭포를 지나 구름다리를 건너면 해발 719m의 **금은광이삼거리**에 다다른다. 등산길에 가까우니 쉬엄쉬엄 오르자. 깊은 산골 낙엽길은 등산객이 드물고 외지다. 혼자보다는 동반객과 함께 걷는 것을 추천한다. 10여기구 남짓 살고 있다는 너구마을을 지나면 주왕산의 또 다른 대표 볼거리인 **달기폭포**가 나온다. 11m 높이의 폭포로 녹색, 회백색, 회색 등 화산재가 굳은 응회암에 생긴 다양한 형태의 절리를 볼 수 있다. 녹색 농촌 체험 마을인 **월의마을**, **달기약수탕**을 지나면 첫째 길의 종착점인 **운봉관**에 이른다. 운봉관은 조선 세종 10년(1428년) 군수 하담이 세운 객사. 이곳을 드르는 중앙 관리나 외국의 사신이 주로 머물렀다.

거리 18.5km 소요 시간 6~7시간

길 지도 주왕산국립공원 안내 센터 → 웅추폭포 2.2km → 용연폭포 4km → 금은광이삼거리 5.2km → 너구마을 8.8km → 달기폭포 10.3km → 월의매표소 12.2km → 월의마을 → 달기약수탕 15.3km → 운봉관 18.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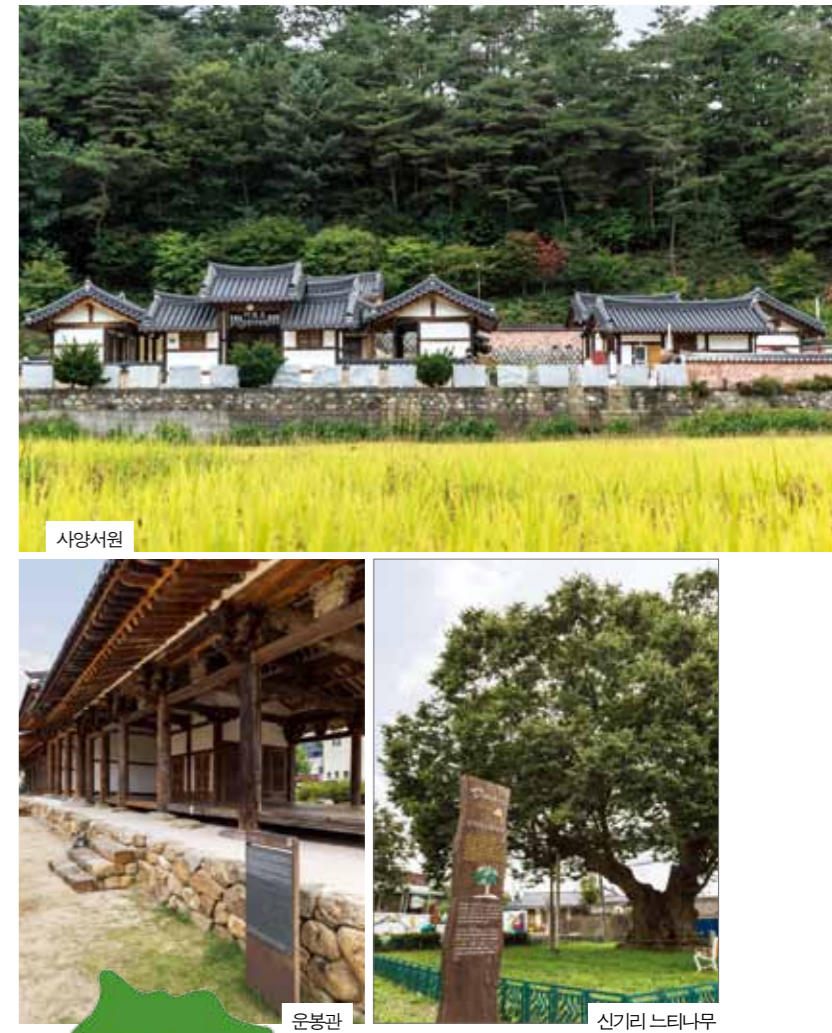
사리마을 청송군청

둘째 길, 슬로시티길

소헌공원 내 **운봉관**을 시작으로 11.5km에 이르는 슬로시티길은 청송의 마을과 그 안에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구간이다. 길을 걸으며 만나는 **청송 재래시장**에서는 청송 산지에서 나는 각종 산나물, 약재, 사과, 버섯, 고추 등 건강한 식재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4일과 9일에 장이 열리며, 보통 오후 4시까지 장이 선다. **수달 생태 관찰로**에서 수달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는 일단 접어두자. 운이 좋아야 주왕산 계곡이나 주산지에서 수달을 만날 수 있다고. 3.8km 지점에서 청송의 상징인 **송소고택**과 마주한다. 송소고택은 송소 심호택이 1880년 무렵 지은 살림집. 조선시대 민가 중 최대 규모인 아흔아홉 칸으로 지었으며,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50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현재 여행객을 위한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씨버선길 표지리본을 따라 걷다 보면 신승겸의 후손인 평산 신씨의 마을, 중평마을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나무 80여 그루가 있는 **중평 솔밭**. 청송靑松은 본래 ‘푸른 소나무’의 마을이 아닌가. 과거엔 3백여 그루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조금은 초라한 규모로 남아 있어 안타깝다. 그 옆에는 고려 개국 공신 신승겸의 12대손 신현申賢의 위패를 봉안한 **시양서원**이 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안은 들여다볼 수 없지만 서원 내 화해서 편액은 백범 김구 선생이 썼다고. 신기리 마을에 들어서면 만나는 신기리 느티나무는 사과밭에 둘러싸여 있다. 수령이 4백 년 이상 된 느티나무는 높이 13.9m, 둘레 7.57m로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신기리 느티나무에서 약 1km를 지나면 참나무 가로수로 둘러싸인 **청송 전통 한지장** 이자성 명인의 생산장을 만날 수 있다. 11.5km의 장정이 끝나는 지점으로 생산장 내 가람공방에서는 미리 예약을 하면 한지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거리 11.5km 소요 시간 4~5시간

길 지도 소헌공원 운봉관 → 청송 재래시장 0.5km → 합격사과 0.8km → 수달 생태 관찰로 → 송소고택 3.8km → 중평 솔밭 6.3km → 시양서원 → 소망의 돌탑 8.6km → 신기리 느티나무 10.4km → 청송 전통 한지장(체험관) 11.5km



시양서원

운봉관

신기리 느티나무

셋째 길, 김주영객주길

소설가 김주영의 이름을 내건 객주길은 외씨버선길 청송 구간 중에서는 가장 드라마가 적은 길일지 모른다. 신기리 마을의 천연기념물, **느티나무**에서 시작하는 셋째 길은 **청송 전통 한지장**을 거치면 본격적인 여정에 오른다. <객주>는 소설가 김주영이 1980년대 초 서순신문에 5여 년간 연재한 장편 역사소설이다. 그는 <객주> 서문에서 “이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저것거리, 그 저것거리에서 나는 감수성 많은 소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다. (...) 어릴 때부터 나는 땀 냄새가 뚝뚝 배어나는 그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을 보아왔다”라고 썼다. 2.4km 지점에서 만나는 **감곡저수지**는 리틀 주산지라 불리는 왕버드나무 군락지. 주산지보다 군락의 규모가 작고 평범한 풍경이다. 해발 671m의 비봉산 골짜기에 있는 **수정사**도 마찬가지. 고려 공민왕 시대에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그 역사는 깊지만, 깊은 산속에 암자처럼 아담하게 자리한다. 수정사 주변에는 ‘황성터’를 작사한 왕평 이용호의 묘가 있다. 이제 등산길이다. “장군의 말이 다쳐 쓰러지자 말을 이 계곡에 묻고 갔다 하여 마물굴이 되었다”는 **마물굴저수지**를 전후로 오막과 내리막이 교차하는 구릉지를 여러 곳 통과한다. 9.3km 지점에 있는 **각산저수지**의 ‘각산’은 소설 <객주>에 나오는 마을이다. 나지막한 구릉을 내려가면 농수로로 사용하는 **고현지**에 다다른다. 그 과정에서 솔숲과 물길 따라 웅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행운의 순간과 조우한다.

거리 15.6km 소요 시간 5~6시간

길 지도 신기리 느티나무 → 청송 전통 한지장(체험관) → 감곡저수지 왕버드 군락지 2.4km → 수정사 4.1km → 마물굴저수지 → 너븐삼거리 5.7km → 동천지 → 각산저수지 9.3km → 시릿골 → 진보면 고현지 15.6km



일러스트 최익건



날고, 뛰고, 타고, 오르다

청송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

기하학 구조의 기암과 마르지 않는 폭포, 청정한 하늘과 태곳적 기운이 살아 있는 지형 등 청송은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곳. '국내 산악 스포츠의 메카'라 불릴 만큼 흥미진진한 대회 또한 풍성하다. 경기를 그저 관람하는 것만으로 펄떡거리는 생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산악 스포츠는 청송의 자연을 만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료 제공 청송군청 새마을경제과 (054-870-6206)

하늘에서 즐기는 청송

하늘길은 면적의 82%가 산지인 청송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른다. 방광산 활공장은 매년 10월경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리는 청송의 하늘길. 방광산 활공장은 입지적으로 상승 기류가 안정적이어서 사계절 안전한 비행을 즐길 수 있다고. 일반 여행객이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없어 아쉬워지만, 국내 패러글라이딩 협회를 통해 많은 동호인이 이곳을 찾는다. **장소** 경북 청송군 청송읍 방광산 활공장

빙벽 오르는 스코어더맨

웅장하다. 부동면 내룡리에서 동쪽으로 2km 지점에 있는 얼음골폭포는 높이가 62m 나 된다. 자연 바위지만 폭포는 1999년에 설치한 인공 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다. 세계 질 내내 석빙고처럼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이곳은 국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장소로 유명하다. 자연 바위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1월에 특히 장관을 연출한다. 오는 2015년에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기암 절벽 전체에 파이프로 만든 피이프터처럼 겹겹이 박힌 얼음이 수려한 풍치를 뽐낸다. 월드컵에 오를 세계 최고의 클라이머들이 피켈pickel이라는 작은 도구만 이용해 빙벽이나 인공 구조물을 등반하는 아이스클라이밍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다. 한여름인 7월 말에는 드라이틀링 대회가 열린다. 빙벽 등반 장비를 착용하고 자연 암벽과 인공 구조물을 등반하는 것으로, 시원한 폭포수를 맞으며 등반하는 클라이머의 모습이 겨울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더불어 얼음골 일대에 클라이밍 센터, 인공 암벽장, 볼더링 벽, 클라이밍 스쿨, 트레킹 코스 등을 갖춘 얼음골 빙벽 벨리를 조성해 그 일부를 12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장소** 경북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얼음골

라이더들의 천국

라이더들은 '달릴 곳'이 없다고 하지만, 청송에서는 다르다. 해발 933.1m의 태행산에 조성한 산악자전거(MTB) 코스는 산악자전거 애호가에게 국내 최고의 코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5월 초에는 이곳에서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린다. 다운힐 경기와 크로스컨트리 경기에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라이더들이 모인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자연 그대로의 계곡 그리고 흥미진진한 능선을 가로지르는 길로 주왕산 노루용추계곡과 달기폭포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 산악자전거 애호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매년 8월경 태행산에서는 국제 모터사이클 챔피언십 대회가 열린다. 대중 스포츠는 아니지만 강렬한 엔진음을 내뿜으며 고난도의 점프와 질주 실력을 뽐내는 이색적 모습에 합성이 절로 터진다. **장소** 경북 청송군 청송읍 태행산 MTB 코스



한동수 청송 군수

우리는 자연을 마케팅합니다

유해가 가사처럼 종로 거리에 향기로운 사과나무를 기증했다. 흐르는 청계천에 사과를 둥둥 띄워 도시인에게 아이처럼 신나게 뜰채로 사과를 건져 올리는 기쁨도 맛보게 해주었다. 오는 11월, 청송과 서울에서 어김없이 사과 축제가 열린다면 이번에는 또 어떤 신나는 일이 벌어질까? 한동수 청송 군수가 이야기하는 청송 지역의 보물과 미래에 관하여.

청송군이 이처럼 독특한 지역 마케팅을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2007년 처음 청송 군수가 된 후 올해 어느덧 3선 군수가 되었습니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청송 사과를 브랜드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청송을 전국에 알리고, 새로운 유형의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이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요. 다행히 제가 임기를 세 번 연임하게 된 덕분에 자신 있게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펼쳐놓은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반듯한 군수 덕분에 청송의 이미지가 달라졌고 한 단계 도약했다는 칭찬을 지역민과 전국민에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송군은 어떤 곳인가요? 청송군은 어느 지역보다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부터 조선 8경으로 불리는 주왕산은 빼어난 경관과 생태 환경 덕분에 연간 1백50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한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얼음골, 동강에 버금가는 절경의 신성계곡, 월매계곡, 고아리 백석탄 등 자연 경관이 무척 아름답지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더 유명해진 주산지처럼, 신비로운 자연 풍광이 펼쳐집니다. 또한 청송 온천은 중탄산나트륨 온천이어서 수질이 좋고 실제로 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가 매끄러워집니다. 땅에서는 약수가 올라와 이 물로 음식을 하면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미가 되지요.


예전의 청송과 현재의 청송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청송군은 이름 그대로 푸른 소나무의 고장입니다. 청송 사람은 심성이 온순하고 인정도 많고 순박하지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교통의 오지로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니 지역민이 심각한 소외감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대구나 서울 등의 외지로 나가서 학교와 직장을 다닐 당시 누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청송'이라고 대답하면 늘 '촌놈' 소리를 듣기에 그냥 '안동 옆에 산다'고 둘러대곤 했죠. 하지만 최근 녹색 성장이 중요시되면서 이런 점이 오히려 청송의 장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송은 공장이 없는 청정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 장점을 살려 '자연 마케팅'을 합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우리의 자연을 부러워하니, 이제는 청송 사람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자, 웅기, 한지, 사과 축제 등 문화 관광 아이템 개발에 열심인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많은 사람이 관광버스형 여행을 했다면 요즘 가족이나 소그룹은 체험학습형 여행으로 나아간다는 걸 우리 군은 미리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의 5대 중심 과제를 '느낌과 힘이 있는 휴양 청송'으로 정하고 자연과 문화 체험을 융합한 문화 관광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조성한 오토 캠핑장은 개장 1년 만에 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입니다. 장난끼 공화국, 객주테마박물관, 청량 백운도 전사관, 청송

백자 전사관, 수석박물관, 슬눈리 느낌보 세상 사업, 외씨버선길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스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송 사과 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나요? 올해 10주년을 맞은 청송 사과 축제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개최합니다. 청송군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11일과 12일 양일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청송 사과 페스티벌도 이제는 서울 도심의 독특한 축제 문화로 자리 잡았지요. 청송 사과 축제는 농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특징입니다. '보고, 느끼고, 즐기는' 문화 예술 접목 행사를 지향하지요. 덕분에 청송 사과의 품질에 걸맞게 사과 축제의 위상이 높아져 뿌듯합니다.

최근에는 청송군이 레저 스포츠의 고장으로 떠올랐지요? 군 전체 면적의 82%가 산이라는 지리적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패러글라이딩 대회, 태행산 산악자전거 대회, 썸머 드라이틀링 대회, 낙동정맥 등반 대회, 산악 마라톤 대회, 국제 모터사이클 챔피언십 대회 등 다양한 산악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자원화했습니다. 캠핑 문화도 정착시키기 위해 오토 캠핑장은 물론 주왕산 야영장, 사과공원, 청운하천 등을 연계한 캠핑 축제를 매년 개최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수용할 새로운 시설을 구상 중이신가요? 앞으로 주왕산 관광지 내에 4백실 규모의 대명콘도 리조트와 관광객 숙박이 가능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인 연수원이 문을 엽니다. 임업인 연수원은 연내 완공 예정이고 대명콘도는 2018년 완공됩니다. 또한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송군 파천면 일원에는 전통 한옥 민박 체험 시범 지구도 있습니다. 주왕산 앞에 대규모 주차장도 2017년쯤 완공하니, 사계절 언제든지 청송에 오셔서 맑은 대자연 속에서 머무는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청송의 명인

- 1 **청송 백자 전수장** 경북 청송군 부동면 법수길 190, 054-873-7744
- 2 **청송 백자 전시관(청송문화관광재단)** 경북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494, 054-874-0101
- 3 **청송 심수관도예전시관(청송문화관광재단)** 경북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494, 054-874-0101
- 4 **청송 전통 옹기장(체험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4리 351, 054-874-3362
- 5 **청송 전통 한지장(체험관)** 경북 청송군 파천면 청송로 5882-41, 054-872-2789

청송의 자연 볼거리

- 1 **주왕산국립공원**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69-7, 054-873-0014~5
- 2 **달기약수탕**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526, 054-873-2387
- 3 **달기폭포**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위리 308-2, 054-873-0017
- 4 **백석탄**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054-870-6240
- 5 **신촌약수탕**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37, 054-870-6244
- 6 **주산지** 경북 청송군 부동면 주산지길 163, 054-873-0014

청송의 문화 볼거리

- 1 **객주문화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353, 054-873-8011
- 2 **사양서원**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054-873-0101
- 3 **소슬자연빛깔 천연 염색 체험장**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98, 054-873-6300
- 4 **청송 수석·꽃돌박물관(청송문화관광재단)** 경북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494, 054-870-6067
- 5 **운봉관**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69, 054-870-6244
- 6 **청송아송미술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46-3번지, 054-870-6536

청송의 즐길 거리

- 1 **방광산 활공장** 경북 청송군 청송읍 방광산 활공장, 054-870-6206
- 2 **얼음골 계곡** 경북 청송군 부동면 팔각산로 228, 054-870-6244
- 3 **청송오토캠핑장** 경북 청송군 부남면 화정리 산118번지, 054-874-0100
- 4 **MTB 코스** 경북 청송군 청송읍 태행산, 054-870-6206

청송의 먹을 거리

- 1 **느린마을 양조장 청송양원** 경북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 162-1, 054-874-1645
- 2 **달기약수탕 봉산 식당**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300, 054-873-2183
- 3 **신촌약수탕 명궁약수기든**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31-12, 054-874-0033
- 4 **주왕산 청솔 식당**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19, 054-873-8808
- 5 **주왕산 토산물 식당**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75, 054-873-2923
- 6 **청송 사과 공원** 경북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로 222, 054-970-6227

청송의 머물 곳

- 1 **서벽고택**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378, 010-3748-1387
- 2 **송소고택**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 054-874-6556
- 3 **주왕산성천택**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1346, 010-5607-7272
- 4 **주왕산온천관광호텔**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69-2, 054-874-7000~6
- 5 **활방공종택**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8-2, 010-9502-7611